

2. 근대혁명의 빅뱅, 프랑스대혁명

강사: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여러 모로 한국 사회의 틀과 기초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대 이후 과거의 전통과 관행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형태의 혁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세계혁명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은 인간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해 줌과 동시에 세상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줄 것이다.

근대 시민혁명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회민주주의의 서막을 연 영국의 명예혁명, 영국으로부터 독립과 함께 근대 공화정을 확립했던 미국혁명 그리고 이번에 다룰 프랑스대혁명을 꼽을 수 있다.

일련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근대적인 민주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까지는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는 많은 재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의 전유물이다시피 했다. 민주주의 선두 주자로 나선 영국조차도 19세기 초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재산이 많은 10여 만 명에 불과했다. 근대 공화정의 모범을 보였던 미국조차도 19세기 후반까지 백인 남성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유색 인종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여성은 재산 일부로 간주되었다.

여기에 맞서 모든 성인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보통선거 제도 도입을 위한 투쟁이 일어났다. 그 선두에 선 것은 노동자 계급이었으며 여성과 유색 인종들이 그 뒤를 따랐다. 결국 1928년에 이르러서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21세 이상 모든 남녀가 선거권을 갖는 보통선거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프랑스대혁명은 이러한 시민혁명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프랑스대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을 포함해 근대 이후에 진행된 다양한 혁명의 원형을 잉태했다. 한마디로 근대혁명의 빅뱅이었다.

거대한 에너지의 축적

왜 하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폭발한 것일까? 역사상 커다란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프랑스대혁명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거대한 에너지가 일련의 계기를 맞이해 대폭발을 일으킨 결과였다.

16~18세기에 이르는 시기 프랑스는 여러 모로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였다. 서유럽 국가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축에 속했으며,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고, 과학기술과 교육·문화 등에서 단연 선진국에 속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빠르게 성장했다.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은 지배 권력을 쥐고 있던 봉건 귀족 세력과 격렬한 충돌을 야기했다. 두 계급의 충돌은 종교 대립으로 표현되었다. 봉건 귀족 세력은 상업 이윤 추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가톨릭교회에 속해 있었다. 반면 부르주아 계급 대부분은 상업 이윤을 허용한 신교에 속해 있었다. 당시 이들 프랑스 신교도들은 위그노로 불렸는데 종교 개혁가 칼뱅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가톨릭교회가 상업 이윤 추구를 억제했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생전의 예수는 상업 행위에 대해 깊은 경멸과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 예수가 살던 로마 시대는 상업과 무역이 크게 번성했으나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상품’은 노예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다. 예수가 상업 행위를 배격하고 만민 평등에 입각한 공동체를 옹호했던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강력한 저항 논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교회 역사가 오래 지속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봉건 귀족 세력들의 이해관계는 주로 토지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농노들이 토지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고분고분하게 일해 주기를 원했다. 그러던 중 중세 말기 도시 상공업이 번성하면서 농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다. 도시 삶을 쫓는 농노들의 이탈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봉건 귀족 세력은 상공업 발전을 자신들 존재 기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 일환으로 상업적 이윤 추구를 극도로 억제하였다. 예수에서 비롯된 저항 논리가 후대 귀족들에 의해 지배 논리로 변질된 것이다.

프랑스 봉건 귀족은 상업 이윤 추구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 위그노들을 혹독하게 탄압했다. 1572년에는 8월 24일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위그노를 대량 학살한 이른바 ‘성 바르톨로메오 대학살’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가톨릭교도와 신교도 사이에 37년간에 걸친 종교전쟁이 진행되었다.

두 종교 세력이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도 있었으나 17세기 후반에 등극한 루이 14세는 종교 자유를 허락했던 낭트 칙령마저 폐기하고 위그노를 재차 학살하기 시작했다. 위그노들은 살기 위해 대대적인 국외 탈출을 감행했다. 루이 14세 제위 기간 중 100만 명이 넘는 위그노가 프랑스를 떠났다. 이들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으로 이주하여 해당 나라의 산업화 원동력이 되었다.

프랑스는 유달리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힘과 위에서 누르는 힘이 매우 강력하게 충돌을 일으킨 나라였다. 그 과정에서 거대한 혁명 에너지가 축적되어 갔다. 프랑스 사회가 불꽃만 튀면 대폭발을 일으킬 거대한 화약고로 돌변한 것이다.

대폭발

프랑스 봉건 지배 세력은 부르주아 계급을 억누르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통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막강한 재력을 지닌 부르주아 계급의 지원이 절실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봉건 지배 세력과 결탁한 부르주아 세력은 권력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18세기 유럽 최대 금융 사건인 ‘미시시피 버블’이 발생했다.

171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미시시피 사는 북미 대륙 미시시피 강 하류 연안을 식민지로 개척했다. 미시시피 사 사장 존 로는 루이 15세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고 덕분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와 정부 재정 총괄 책임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존 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북미 식민지 사업 관련 주식을 발행한 뒤 사업 전망을 과대 포장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속았다. 처음 50리브르였던 주식 가격은 1719년 12월 초 1만 리브르를 호가했다.

주식 가격은 정점을 찍은 뒤 버블 붕괴로 눈사태처럼 무너져 내렸다. 존 로는 주식 가격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 자금을 대거 투입해 주식을 매수했다. 존 로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돈을 더 찍어내도록 인가했다. 프랑스 재정 시스템 전체 거품 속으로 빨려들면서 부실화되었다. 그에 아랑곳없이 미시시피 사 주식은 완전 붕괴해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쓰레기로 전락했다.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자살이 속출했다.

미시시피 버블 사건으로 프랑스 재정은 완전 부실해졌고 신용 또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에 대한 민중의 불신 또한 극에 이르렀다. 프랑스 정부는 융자를 받기도 쉽지 않았고 어렵사리 받더라도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빚을 갚기 위해 고율의 빚을 끌어오면서 빚은 갈수록 늘어 갔다. 루이 16세기 즉위한 이후인 1780년대 이르러 정부 재정은 파산을 향해 치달았다. 재정 절반 정도가 대출금 이자 지불로 탕진되고 있었다. 결국 루이 16세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프랑스는 사제, 귀족, 제3신분(부르주아를 포함한 평민) 등으로 구성된 신분제 의회로서 삼부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삼부회는 지난 150년 동안 소집되지 않고 있었다. 루이 16세는 재정 위기 해법을 마련하고자 삼부회를 소집했다. 공론 장이 마련되자 수백 년 동안 쌓여 온 불만들이 일거에 폭발했다.

기회가 왔다고 판단한 제3신분 대표들은 삼부회를 무시하고 별도 대표 기관인 국민의회를 구성했다. 루이 16세가 군대를 동원해 반격을 가하려 하자 파리 시민들은 즉각 행동에 돌입했다. 무장 필요성을 느낀 시민들은 화약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파리 시민들은 봉건 지배의 상징과도 같았던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1789년 7월 14일) 프랑스대혁명이 본격 막을 올린 것이다. 혁명의 불길은 일거에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프랑스대혁명은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먼저 기존 체제 아래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대중의 불만이 고조돼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존 지배 질서가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전자 경우는 부르주아 계급을 중심으로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있었다. 후자를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 계기는 미시시피 버블 사건이었다. 그 사건으로 프랑스 지배 질

서는 재정 파탄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혁명적 독재’로의 전환

혁명이 확산되면서 귀족 거주지를 습격하고 봉건 문서를 불태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수많은 지방 도시들 행정 조직이 와해되었다. 혁명이 급격히 진전되자 8월 4일 젊은 귀족들은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8월 11일 추기경과 파리 대주교는 더 이상 십일조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회는 8월 29일 새로운 질서 구축의 원칙을 담은, 전문 17조로 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제1조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는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고 천명했다. 인권선언은 구시대의 사망선고서이자 새 시대의 이념적 좌표였다.

혁명 초기단계에서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민중세력은 봉건 질서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내부의 갈등이 점점 심각한 국면에 이르렀다.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는 국민의회는 2년간에 걸친 논의 끝에 삼권분립에 근거한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선거권은 일정 규모 재산이 있는 400만 명의 남성에게만 부여되었다. 재산이 없는 노동자와 여성들은 혁명에 적극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중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독자적인 정치 흐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자코뱅 클럽이었다. 자코뱅 클럽은 다양한 혁명세력과 연대하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급진적 지식인과 노동빈민층 중심의 하층 계급 출신 혁명 활동가 단체 ‘상퀼로트’가 있었다.

1892년 8월을 지나면서 혁명은 민중 세력 주도 아래 확연하게 왼쪽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다. ‘제2의 혁명’ 혹은 ‘혁명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국면 전환 계기는 국가 혹은 민족이 위기에 직면하면서 민중의 애국주의를 자극한 것이었다. 이는 혁명의 역사를 관통하는 보편적 경향이 하나였다.

루이 16세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손잡고 반혁명 전쟁을 추진했다. 분노한 민중 세력은 혁명의 전면에 나섰다. 21세 이상 모든 남성의 선거권을 기초로 ‘국민공회’를 구성한 뒤 왕권 정지와 함께 루이 16세를 처형했다. 바스티유 감옥 점령과 함께 프랑스대혁명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건의 하나였다.

민중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자코뱅 클럽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급진적인 산악당이 상퀼로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온건 성향의 지롱드당을 축출하고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산악당은 내외의 적으로부터 혁명을 지키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공안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른바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혁명을 성공시키자면 적대 세력에 대해 철저한 독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혁명적 독재’의 시원이기도 했다.

공포 정치는 1793년 6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1000여 명을 단두대로 보내 처형했다. 공포 정치가 노렸던 그대로 공포가 프랑스 전역을 휘감았다. 극심한

공포는 격한 반발을 야기했다. 여기에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 상황 등이 가세하면서 군중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상황에 대한 대처를 둘러싸고 산악당 내부마저 분열되면서 로베스피에르는 고립되고 말았다. 혁명에서 고립은 곧 죽음이었다.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독재자라는 죄를 뒤집어쓰고 자신이 고안해 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처형장으로 향하는 로베스피에르를 향해 군중은 격한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다.

‘세계혁명’ 관념의 태동

오스트리아 등 봉건 국가들은 프랑스대혁명의 불길이 자신들에게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였다. 결국 오스트리아는 혁명을 압살할 목적으로 프로이센과 손잡고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단행했다. 혁명 프랑스가 여기에 맞서면서 ‘혁명전쟁 대 반혁명전쟁’이라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었다.

전쟁 초기 양상은 프랑스에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민중 세력의 전면 진출로 실질적 의미에서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양상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혁명 프랑스는 혁명전쟁을 선포하고 곧바로 총력전 태세를 구축했다. 역사상 최초로 국민모병제 도입과 함께 엄격하게 통제되는 전시경제체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프랑스는 기존 유럽 국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봉건 국가들 군대는 오직 귀족들로만 구성되었다. 봉건 지배 세력은 무기가 평민 손에 쥐어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들은 평민들이 무기를 손에 넣는 순간 그 끝을 자신들에게 겨냥할 것이라 우려했다. 더불어 봉건 국가들 지휘관 대부분은 5,60대 연로한 인물들이었다. 신생 프랑스 군대는 모든 점에서 달랐다. 국민모병제 실시와 함께 평민 출신 젊은이들이 군대 주력을 이루었다. 지휘관 역시 20~30대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변화를 압축해서 보여준 극적인 장면이 바로 나폴레옹 부상이었다. 나폴레옹은 평민 출신으로서 24세에 장군이 되었다. 나폴레옹은 평민 출신답게 일체의 특권 의식 없이 시종 병사들과 동고동락했다. 이런 나폴레옹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나폴레옹을 적극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혈기 왕성한 젊은 프랑스 군대는 나폴레옹의 탁월한 지휘 아래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과감성과 기동성에서 프랑스 군대는 압도적 우위를 자랑했다. 일련의 혁명전쟁을 거치며 오늘날 벨기에와 독일의 라인 강 서쪽 지역은 프랑스에 합병되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이탈리아에는 이른바 자매국가로 불린 위성국가들이 세워졌다. 그곳에서는 프랑스 군인들과 외교관의 감독 아래 현지 자코뱅주의자들의 주도로 프랑스 모범을 따르는 일련의 혁명적 조치들이 잇달아 취해졌다.

프랑스대혁명은 혁명은 반드시 반혁명 공세를 초래함을 보여주었다. 반혁명 공세는 국내 지배 세력만이 아니라 국외로부터 함께 이루어졌다. 프랑스는 군사력의 혁명적 쇄신을 통해 반혁명전쟁을 분쇄시킴으로써 혁명을 유럽 일원으로 확산시켰다. 프랑스는 혁명 수출의 기지가 되었고 ‘혁명의 조국’이란 칭호를 얻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랑스대혁명을 통해 혁명은 결코 개별 국가에서 완결될 수 없음을 간파했다. 그로부터 혁명은 여러 국가들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세계혁명’ 관념이 태동했다.

‘군주형 혁명지도자’의 출현

로베스피에르 실각과 함께 프랑스대혁명은 그 어떤 세력도 주도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혁명 초기 국면을 주도했던 부르주아 계급은 민중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민중 세력 또한 정국을 헤쳐 나갈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조직력도 취약했다. 바로 그 때 홀연히 나타나 정국 주도권을 거머쥔 인물이 있었다. 나폴레옹이었다.

혁명전쟁의 눈부신 승리는 나폴레옹을 시대 총아로 부상시켰다. 나폴레옹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 그 최종 종착점은 황제 자리에 오른 것이었다. 나폴레옹의 행보를 저지할 힘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도리어 민중 사이에서는 평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른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명 승리라며 감격해 하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나폴레옹은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 나폴레옹 통치 아래 프랑스는 안정을 되찾아 갔다. 나폴레옹은 혁명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해 만인의 평등, 재산권 보장, 농노제 폐지 등 혁명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법체계에 담아냈다. 노사간, 남녀간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폴레옹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와 법원, 학교 등에서 근대적 모델을 확립했다. 이 모든 것은 근대 국가의 전범을 이루는 것으로서 세계 각국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나폴레옹 집권 기간 동안 프랑스 경제는 뚜렷이 호전되었다. 25만 명의 망명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프랑스인들이 안정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특히 눈에 띄게 사정이 좋아진 농민들에게 나폴레옹 시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프랑스대혁명은 나폴레옹 통치 아래서 비로소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혁명의 적이었던 군주제에 의존해 혁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모순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국민 역시 이 점에서 찝찝함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누구보다도 나폴레옹 자신이 이 사실을 정확히 꿰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혁명전쟁 승리를 통해 약점을 보충하고자 했다. 하지만 러시아원정의 실패는 이 모든 것을 무산시키고 말았다. 도리 없이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면서 프랑스대혁명은 장장 25년에 걸친 대장정을 마감하기에 이르렀다.

자유주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군주제를 부활시켰다는 이유로 나폴레옹 집권 시기를 혁명일부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1894년 7월 로베스피에르 실각 때까지를 ‘프랑스혁명’(대혁명이 아니라!)으로 간주했다.

나폴레옹 집권 시기까지를 프랑스대혁명으로 간주하는 것은 좀 더 좌파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군주형 혁명지도자의 출현을 혁명 속성 중 하나로 보면서 나폴레옹

을 그 원조로 파악했다. 실제로 이후 혁명 주류를 형성했던 사회주의 혁명은 거의 예외 없이 군주형 혁명지도자들을 중심을 전개되었다. 소련의 레닌, 스탈린,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쿠바의 카스트로 등은 이를 대표한다. 가치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겠지만 역사 속 실재로서 혁명은 대체로 이런 모습이거나 그에 가까웠다. 

다시 보는 세계혁명사

2017년 9월 12일 현재

발간일	제목	작성자
09/06	다시 보는 세계혁명사 1강.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	박세길
09/12	다시 보는 세계혁명사 2강. 근대혁명의 빅뱅, 프랑스대혁명	박세길